

산업자원부, 제1차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자 선정

산업자원부는 제1차로 17개 기업을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고, 금년 145억원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총 379억원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산자부는 8개 공공연구기관들로 통합연구단을 구성해 개발대상사업에 대한 기술성을 평가토록 하고 기술성 평가 외에 38개 투자기관들로 구성된 투자기관협의회로 하여금 사업성과 기업 투명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그 동안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결과 우선 17개 기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투자에 Matching 방식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번 기술개발사업 선정은 정부가 아니라 전문 연구기관들과 투자기관들에 의한 시장친화적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적용되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사업성 평가가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된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고, 시장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따라 WTO 규범에 부응하는 지원 방식으로 무역마찰의 소지를 없앴다.

그밖에 선택적 집중 지원방식의 채택, 수입 대체

가 아닌 Global Sourcing을 기준으로 한 품목의 선정 등도 이번 지원체계의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17개 기업은 향후 3년간 정기술 개발자금 379억원, 민간 투자 269억원, 자기자금 242억원 등 총 890억원을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에 투자해 Global Sourcing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친화적 방식을 통해 이번 17개 기업 외에 기술개발 지원대상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선정해 갈 방침이다.

현재 기술성 심사를 통과한 28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151개 신청기업 외에 65개 기업이 추가로 신청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8월 초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을 공고를 통해 추가 선정해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시장친화적 기술개발 지원제도는 개발된 제품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신뢰성 평가·보험 제도와 함께 앞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양대 핵심시책으로 운용될 것이다.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단체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관련법령 등에 의거 산업자원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자율협력 관계에 있는 300여 기관·

단체(6월말 현재)가 이제 산업자원부와 Home page 상호연계 등 On-line Network로 연결된다.

정부기관, 연구기관, 기술개발기관, 이익단체, 특수법인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지닌 기관·단체들이 On-line으로 연계가 강화되면 섬유, 전기·전자, 기계, 철강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인력, 기술, 환경·입지 등 종합적인 내용을 시행하는 산업정책의 현장감과 적시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단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별 단체가 각 회사사와 On-line 연계되면 산업자원부-업종별 단체-회원 기업이 동일한 On-line Network상에 있게 되어

회원 기업의 국내외 홍보는 물론 수요자들이 산업자원부 Home page를 통해 관련기업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자원부와 관련 기관·단체간 정책협의회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On-line Network 구축과 병행해 기관단체를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기술개발기관 등과 같이 성격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기관들과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B2B사업에 업종별 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업종별 단체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해외인증 정보 인터넷 공개

빠르면 올해말부터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외시장 진출과정에서 제품 인증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애로를 겪어 온 국내 업체들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해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과 제품인증 정보를 상호 교환키로 하고 APEC의 지원을 받아 아·태국가 인증관련 웹사이트 구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품인증이란 해당제품이 특정기준 또는 규격을

만족하는지를 공인된 제 3자 기관이 증명하는 것으로 제품검사를 통해 안전 또는 품질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구축될 웹사이트는 환경안전규제를 비롯 각종 인증획득 절차 소요비용 및 대응요령 등이 등재, 수출기업들은 관심지역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같은 웹사이트 구축작업은 산자부가 지난 '97년 APEC에 공식 요청한 뒤 지난해 개최된 APEC 표준 및 적합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산업자원부, 디지털 산업단지 시범사업 착수

산업자원부는 디지털 시대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8월부터 안산지역의 발원, 시화단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산업단지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6.7억원(산자부 : 10억원, 산업단지공단 및 (재)안산테크노파크 : 현금, 현물 출자 6.7억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안산지역의 발원, 시화단지(전체 3,600여 기업)에 입주한 전기, 전자, 기계분야의 종업원 50인 이상인 중소기업 300여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산 디지털 산업단지는 기업의 비즈니스에 맞는 각종 콘텐츠와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일 산업단지, 유사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테크노파크, TIC, 지방대학 등 지역 혁신기관과의 커뮤니티 연계를 통해 산업단지내 혁신 기술과 정보유입을 촉진, 제고하고, 행정기관, 산업단지공단 등 지원기관과도 온

라인 네트워킹을 구축할 예정이다.

안산지역 디지털 산업단지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산업단지내 정보화 교육장을 구축하고, 입주기업의 정보화 교육도 실시함으로써 부족한 정보화 인력 양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현재 수립중인 디지털 산업단지 종합계획을 통해 200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산을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추진대상 국가산업단지로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지역특화산업,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 9개 업종별 B2B 시범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확산산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matching fund를 통해 지방 및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디지털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산업단지를 네트워크로 연계해 입주기업의 정보를 활용수준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경영환경지수' 개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환율 등 외부요인과 생산·판매 등 기업내부 생산활동결과를 평가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중소기업경영환경지수'

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현재 산업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 9월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개발지수에 대한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주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경영 환경지수는 자금분야(금리, 환율, 회사채, 이자율, 자금공급량 등), 생산분야(원자재가격, 임금, 고용 동향, 가동률), 판매 및 수출여건, 기업증감추이(창업 및 부도) 등에 관한 각종 지수를 통계적 기

법을 활용해 단일지수화 된다. 중기청은 이 지수를 통해 그 동안 분야별로 파악했던 중소기업 경영환경지수를 단일화해 기간별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경기동향 및 경영여건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사용을 줄입니다.

